

SPORTS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전남체육인 대상 ‘지방체육 발전’ 소통 행보

대한당구연맹 회장배 대회

관중과 함께하는 축제 개최

대한당구연맹은 18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청춘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당구연맹 회장배 전국3쿠션당구대회를 다채로운 체험형 ‘당구 축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날 열릴 예정이던 태백산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가 상급 지급 방식 문제로 취소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당구연맹은 경기장 외부 공간에 체험형 이벤트를 설치하고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당구연맹은 “선수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관중과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전문체육선수부와 생활체육선수부로 나눠 운영하고, 주요 경기는 SOOP 연맹 공식 채널과 스포츠 전문 채널 SOOP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주니어 핸드볼 국가대표

폴란드 세계선수권 출격…내일 개막

한국 남자 주니어(21세 이하)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김오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제25회 세계남자 주니어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폴란드로 15일 출국했다.

32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18일 개막하며 4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토너먼트로 순위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일본, 미국과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지난해 아시아 주니어선수권 준우승 멤버들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은 18일 스웨덴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김오균 감독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 핸드볼의 저력을 보이고,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21년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 2023년에는 지역 예선 통과에 실패했다.

2019년 24개 참가국 가운데 16위에 오른 우리나라의 이 대회 최고 성적은 1989년 대회 9위다.

연합뉴스

‘US오픈 제패’ 스펠, 세계랭킹 8위

최종 합계 1언더파 279타 기록

남자 골프 시즌 제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을 제패한 J.J. 스핀(미국)이 처음으로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진입했다.

스핀은 16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의 25위보다 17계단 뛰어오른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핀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몬트의 오크몬트 컨트리클럽(파70)에서 막을 내린 제125회 US오픈에서 최종 합계 1언더파 279타를 기록,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역전 우승으로 생애 첫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스핀은 개인 최고 세계랭킹도 경신했다.

세계랭킹 1~5위는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젠디 쇼플리, 콜린 모리카와,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순으로 변함 없었다.

US오픈을 공동 10위로 마친 라셀 헨리(미국)가 세계랭킹을 6위로 한 계단 끌어 올렸고,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가 7위,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9위다. US오픈에서 첫 탈락한 루트비그 오베리(스웨덴)는 6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아시아 선수 중엔 마쓰야마 히메키(일본)가 11위로 가장 높았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가 지난주보다 두 계단 하락한 25위에 이름을 올렸고, 안병훈 49위, 김주형은 52위, 김시우는 61위에 자리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공동 주관으로 15일까지 경기도 안산의 덕해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손 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는 112위에서 93위로 경증 땀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전남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1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한 ‘2025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전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전남 22개 시·군체육회장과 72개 종목단체장,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지도자, 스포츠클럽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목소리를 나눴다.

유승민 회장의 이번 전남 방문은 지방체육회 자립 및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그가 회장 취임 이후 지방체육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한 약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순회 간담회 대상 17개 시·도체육회의 마지막 시·도 방문지로 간담회를 최종 평가하는 무대로서, 간담회 의미가 더해졌다.

간담회는 인사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대한체육회 비전 발표, 전남체육인과의 현안 논의 및 의견 수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공약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주요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선수-지도자간 연계를 위한 ‘스포츠커넥트’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의 K-스포츠 육성 등 대한민국 체육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한 ‘2025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됐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학교체육 활성화 등 정책 방향 논의

시·군체육회 등 200여명 참석…“현장 의견 체계적 정리”

체육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남체육인들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대책,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맞는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활성화 대책, 군비100% 지역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 방안 강구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의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도는 장흥군에 조성된 대한체육인재개발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 확보 및 조속한 개원을 촉구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이 강해져야 대한민국 체육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소신에

한국 최초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도전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

IPC 위원장 후보 신청서 제출

9월 IPC 서울 총회 기간 선거

배동현(42) BDH 재단 이사장 겸 창성그룹 총괄회장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선거에 나선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6일 서울 중구 알로프트 서울 명동 호텔에서 2025 IPC 서울 정기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배동현 이사장을 IPC 위원장 국내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배동현 후보는 지난 5월 9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실에서 열린 제1차 국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추천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에 IPC에 공식 후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PC는 1989년 9월에 설립된 단체로,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주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전 세계 스포츠를 이끄는 핵심 단체로 꼽힌다.

IPC 위원장은 IPC의 대표로 총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주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알로프트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정기총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왼쪽)과 IPC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 IOC 당원직 위원이 되어,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로버트 스테드워드(캐나다)가 제1대 IPC 위원장을 맡았고, 필립 크레이븐(영국)에 이어 앤드루 파슨스(브라질) 위원장이 현재 IPC를 이끌고 있다.

새로운 IPC 위원장을 뽑는 선거는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5 IPC 정기총회에서 한다.

배동현 후보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IPC 위원장 선출에 도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한국은 1988년 서울 패럴

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공헌했고, 역대 선출직 집행위원 4명을 배출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패럴림픽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자 IPC 위원장 선거에 한국인이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후보는 “2012년에 장애인 체육과 처음 만난 뒤, 내 인생이 달라졌다. 오래 고민하고 IPC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항상 장애인체육과 함께 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곳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따라 지방체육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아말로 스포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한체육회 자체적인 대책(안) 마련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체육이 더욱 발전한다”며 “열악한 현장의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

광주체중 송채연, 단체종합 은메달

광주체중 기계체조 송채연이 아시아선수권에서 단체종합 은메달을 차지했다.

송채연·탁소민(경남 창원합포중)·이혜진·이세연(이상 서울체중)·박혜란이 나선 한국 여자 주니어 기계체조 대표팀은 최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 여자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 단체종합에서 일본(152.897점)에 이어 137.696점으로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홍콩(137.029점)과 접전을 벌였으나 집중력과 연기 완성도에서 앞서며 은메달을 확정 지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 여자 주니어 체조의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향후 국제무대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개인종합 부문에서는 일본의 토비 미나미(56.166점)가 금메달, 사라다 야유(50.466점)가 은메달, 필리핀의 안토 엘리자베스(48.565점)가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송채연은 46.532점으로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또 종목별 결승에서는 송채연(이단평행봉·평균 대), 박혜란(도마·마루), 이세연(평균대), 탁소민(도마)이 진출했으나 메달 입상에는 실패했다.

송채연은 이단평행봉 5위, 평균대 5위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홍윤식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송채연을 비롯한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한국 체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축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23개국, 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남자 6종목(마루·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여자 4종목(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을 시니어·주니어로 나눠 진행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 여자 주니어 기계체조 대표팀은 최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 여자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 단체종합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폐막날 한국신기록 수립

이은지, 女배영 100m 1분 벽 허물어

혼계영 400m서 배영 59초56 주파

15일 폐막된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한국 신기록이 수립됐다.

(사) 대한수영연맹과 광주수영연맹은 한국 여자배영 간판선수인 이은지(18·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진)가 15일 광주 남부대 사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혼계영 400m 결승에서 배영 구간을 59초56에 주파해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네 명의 선수가 배영~평영~점영~자유형 순서대로 100m씩 맡아서 경기하는 단체전인 혼계영 400m에서 첫 영자(배영)의 구간기록은 국제연맹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



종전 한국 기록은 이은지가 2021년 5월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입상 당시 기록한 1분03초03이다.

자신의 기록을 0.47초 앞당긴 이은지는 “1분 벽을 허물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력해왔다”며 “드디어 59초대에 진입해서 정말 기쁘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의 격려가 떠올라서 울컥했다”고 소감을 잊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두 번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이은지는 올해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지 않고 생애 첫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앞뒀다.

이은지는 “25학년 대학생이 된 만큼, 대학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버시아드가 욕심났다. 수영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결실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은지는 이날 한국 기록 경신에 따라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